

서울신문 매체소개서

Company Profile



서울신문

www.seoul.co.kr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대표전화 (02)2000-9000

광고안내 (02)2000-9393

CONTENTS

1. 서울신문은
2. 서울신문 독자층 분석
3. 서울신문 열독률 및 순위

4. 광고 특징
5. 광고 종류·크기
6. 광고 단가
7. 행사 및 광고 특집 (애드버토리얼)

1904년 대한매일신보로 출발한 서울신문은 국내 일간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스포츠서울, 선데이서울, 쿼, TV가이드, 뉴스피플 등 시대를 풍미한 매체를 창간했습니다.

▶ 정부가 투자한 유일한 신문입니다

1904년 7월 18일에 대한매일신보로 창간, 국내 종합일간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신문은 정부가 투자한 유일한 신문입니다. 스포츠서울, 쿼, 파르베, 뉴스피플, 선데이서울 등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2001년에는 서울신문 사원이 최대 주주가 되어 국민을 대변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공익정론지로 거듭났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 독자층입니다

서울신문의 주 독자층은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서울신문 독자층 통계를 보면 대졸 이상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20~50대에 고루 분포돼 있어 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독자 절반 이상이 서울신문에 만족하고 있음이 수치로써 나타났으며 특히 대부분의 독자가 기사의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 독자층이 다양하고 충실해 광고효과가 높습니다

서울신문은 다양하고 충실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계약을 통해 장기 고정 배포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광고주가 원하는 날짜와 지면에 배치하는 등 광고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서울신문을 통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높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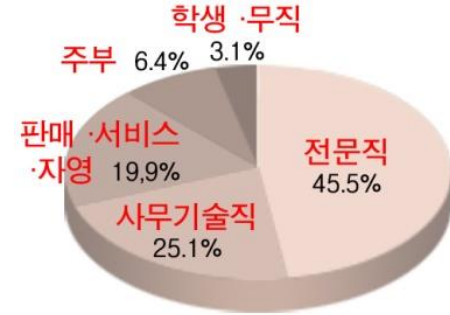
1 연령별 분석

다양한 연령대가 즐겨보는 신문입니다. 특히 사회 중심 계층인 30~40대가 많이 구독합니다.



2 학력별 분석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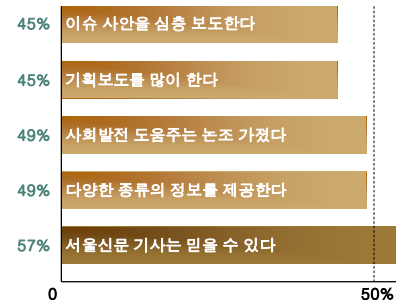
3 직업별 분석

전문직이 독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구독합니다.



4 독자 만족도

독자 절반 이상이 서울신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5 독자 평가

기사의 신뢰성을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자프로파일 조사: 한국리서치
·대상: 서울신문 독자 1500명 표본 조사

3. 서울신문 열독률 및 순위

▶ 종합일간지 열독률 현황

※서울신문 열독률은 매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실한 독자층이 많고, 기사 신뢰성이 높음을 말해줍니다.

구분	신문명	(전국, 개인전체, %)					(수도권, 개인전체, %)		
		2012 1R	2013 1R	2014 1R	2014 2R	2014 3R	2012 1R	2013 1R	2014 1R
1	서울신문	0.6	0.6	0.5	0.5	0.5	1.0	1.0	0.8
2	한국일보	1.0	0.8	0.7	0.5	0.5	1.0	0.9	0.7
3	한겨레	2.3	2.1	1.6	1.4	1.4	2.0	1.9	1.6
4	경향신문	2.1	1.6	1.4	1.5	1.3	2.3	1.6	1.6
5	문화일보	0.3	0.3	0.3	0.2	0.2	0.4	0.4	0.4

※HRC Media Index ※ABC 2013년 발표(2012.1~2012.12 조사분) ※ABC 2014년 발표(2013.1~2013.12 조사분) ※ABC 2015년 발표(2014.1~2014.12 조사분)

▶ 종합일간지 웹사이트 순위

※서울신문 웹사이트 순위는 조·동·중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가 더욱 강한 서울신문입니다.

구분	신문명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	일간 순방문자	총 체류시간 (*1000)	평균체류 시간(분)	방문횟수 *1000	평균재방문 일수(일)	페이지뷰	캐시 페이지뷰(%)	평균 페이지뷰	평균로딩 시간(초)	시간 점유율(%)	반송률	성장률(%)
1	조선일보	chosun.com	2,427,817	7.55	546,088	27,353.928	11.27	5,563	1.59	68,012,340	3.86	28.01	1.34	10.33	46.27	-10.325
2	동아일보	donga.com	2,174,851	6.77	490,401	16,775.767	7.71	5,094	1.59	30,033,531	11.04	13.81	1.84	6.33	48.82	9.796
3	중앙일보	joins.com	2,095,407	6.52	438,754	11,196.224	5.34	4,096	1.46	13,739,486	7.07	6.56	3.38	4.23	51.8	8.707
4	서울신문	seoul.co.kr	1,918,761	5.97	349,625	5,002.748	2.61	2,956	1.29	5,049,876	1.57	2.63	4.65	1.89	72.29	18.425
5	세계일보	segye.com	1,279,534	3.98	218,549	2,084.24	1.63	1,774	1.21	2,280,816	6.76	1.78	6.81	0.79	84.16	7.209
6	경향신문	khan.co.kr	958,864	2.98	189,176	5,085.804	5.3	1,895	1.38	12,269,767	3.8	12.8	0.59	1.92	62.82	-10.647
7	한겨레	hani.co.kr	602,805	1.88	142,328	2,959.692	4.91	1,378	1.67	3,136,200	6.11	5.2	3.12	1.12	61.89	-11.174
8	국민일보	kmib.co.kr	568,096	1.77	102,335	1,929.578	3.4	954	1.27	1,487,830	0.78	2.62	3.64	0.73	72.34	-7.363
9	문화일보	munhwa.com	470,887	1.47	95,110	2,230.248	4.74	868	1.43	1,739,974	3.68	3.7	5.7	0.84	57.46	-5.575
10	한국일보	hankookilbo.com	405,243	1.26	72,261	1,356.19	3.35	643	1.25	1,103,835	6.41	2.72	4.68	0.51	70.89	-16.769

※코리아 클릭 조사 자료(2016년 2월 1주) ※종합일간지 10개 언론사

▶ 광고주 니즈 적극 반영

서울신문은 해로운 광고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광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광고주의 니즈(Needs)를 적극 반영, 원하는 날짜와 지면에 배치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광고주에게는 높은 효과를, 독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 독자층은 오피니언 리더

서울신문의 주 독자층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따라서 타사 대비 광고 파급력이 높습니다. 서울신문 열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각과 풍성한 읽을거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 각종 관공서·기업 등에 장기 고정 배포

국내 전 일간지 중에 역사가 가장 깊은 서울신문은 다양하고 충실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장기 계약을 통해 오랫동안 고정 배포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 다양한 광고매체로 홍보효과 높여

서울신문은 신문 외에도 다양한 광고 매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배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서울신문 매체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공익광고캠페인 전개

서울신문은 부정부패 척결, 나눔, 물 사랑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이슈들을 주제로 공익광고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종합 일간지로는 드문 케이스로 독자들 사이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서울신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초고속 인쇄시설 갖춰

서울신문의 초고속 인쇄시설은 첨단 중앙집중 제어시스템을 갖춰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과거에 비해 제작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됐으며 인쇄품질도 최상급을 자랑합니다.

5. 광고 종류·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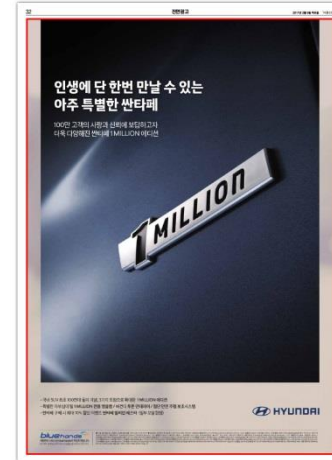
<크기 단위 mm / 넓이 × 높이>



4단 (1면)
1면용 기본 크기
크기 : 354×132



5단
가장 일반적인 크기
크기 : 354×168



15단 (또는 전면)
한 면을 차지하는 크기
크기 : 354×500

7단 변형 (1면)
1면용 변형 크기
크기 : 172×250



9단 변형
일반적인 변형 크기
크기 : 175×290



광고 (크기 다양)
입찰, 공람, 모집, 결산
등 광고 종류 다양



6. 광고 단가

<단가: VAT별도 / 단위: 원>

▶ 면별

구분		규격	단가
1면	영업	1단 1cm	280,000
	공고		300,000
제2사회면	영업		180,000
	공고		200,000
2, 3면	공고		200,000
4,5면			150,000
스포츠, 제3사회면			130,000
사회면			180,000
뒷면			190,000
기타면			75,000

▶ 종류별

구분		규격	단가
컬러광고	1면	1단 1cm	330,000
	뒷면		190,000
	기타면		150,000
돌출 광고	1면 흑백	2단×5.5cm	9,000,000
	1면 컬러		10,000,000
	사회면		5,000,000
	기타면 흑백		3,000,000
	기타면 컬러	5,000,000	
안내 광고		1단 2행	70,000
긴급 광고	해명서, 성명서, 부고, 정치성 광고	1단 1cm	해당면별 요금액 30% 가산
계약 광고	월간 30단 이상 20%할인	계약 단수와 요일은 상호간 협의. (3개월이상 장기 게재)	

▶ 내용별

구분	규격	단가	
부고, 성명서	1단 1cm	200,000	
공고		150,000	
학원		80,000	
부동산		120,000	
연예		면별단가	
계약, 서적			

※게재 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광고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세한 광고비는 담당 영업 사원이 안내해드립니다.

- ① 서울신문은 히트상품, 베스트브랜드 대상, 우수기업 우수상품, 서울광고대상 등의 행사를 연중 주최해 우수한 기업과 상품을 선정한 후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집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홍보효과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
 - ② 또한 기업 맞춤형 페이지(애드버토리얼)를 마련해 광고주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큰 만족을 드립니다.
- ※모든 기사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도 수시로 노출됩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자세한 비용은 담당 영업 사원이 안내드립니다.

2016 히트상품

술취하고 한 병... 명절이라고 한 잔...
오늘도 한 병 '비움'

맥주맛 알만한 사람 이미 마니아에 속한다

부드러움에 취하고 분위기에 빠져든다

피부를 맡게... 아저씨, 아기 피부 대체지 맡자

풍성함이 탐나거나 찰랑임이 부럽거나

행사 특집 (히트상품)

우수기업 우수상품

오늘은 캐주얼하게... 내일은 고급스럽게...
아웃도어와 슈트를 넘나든다

겨울을 위한 아웃도어와 슈트... 내일은 고급스럽게...
아웃도어와 슈트를 넘나든다

겨우 발매받을 저운발췌... '함' 솟구쳐

LED 전등 제대로 시면 20년 속 편하다

행사 특집 (우수기업 우수상품)

기업 맞춤형 페이지

영하 40도 빙판길
시속 100km 담금질
차량부품 '무한 도전'

LED 전등 제대로 시면 20년 속 편하다

기업 맞춤형 페이지 (애드버토리얼)